

원천교회 50주년
문강원 담임목사 컬럼집

당신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천교회

서문

은퇴하신 교계의 원로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지난 목회를 회상하시던 중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하셨던 한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하나님만 보고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목회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무슨 말씀인가? 생각했으나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목양의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나만 바라보아라”가 아니셨습니다. “내가 맡긴 양을 보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때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좀 더 바라보기를 다짐해 봅니다. 언젠가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이 책은 그런 마음으로 쓴 칼럼들을 모은 책입니다.

1부. 실수와 실패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실패는 아니란 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욱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2부. 선한 영향력에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있으면 안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3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 때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목차

서문

1부

실수와 실패

1. 실수와 실패
2. 실수를 선택의 기회로 삼는 사람
3. 영혼의 만선
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5.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6. 비워야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집니다
7. 18분 늦었습니다
8. 희망을 잃으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9. 부끄러운 날을 축복의 날로 바꾸는 사람
10.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11.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
12.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맙시다
13. 낙하점에서의 은혜
14. 내 인생의 브레이크
15.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16. 있는 그대로
17. 회의에서 확신으로
18. 브로큰윈도우이론(Broken Windows Theory)
19. 하나님 저 산수 못합니다
20. 가련한 부모들

2부

선한 영향력

1. 선한 영향력
2. 희망을 주는 사람
3. 예수님 사진 한장 같이 찍어주세요
4. 위로하고 축복하는 목회자
5. 내 백성을 위로하라
6.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7. 거절당한 영혼들을 위하여
8. 말은 씨앗입니다
9. 비판도 칭찬도 다시 돌아옵니다
10. 내 복만 구하는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11. 눈물의 능력
12.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개혁운동
13. 한 사람보다 나은 두 사람
14. 사람에게 투자하라
15.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16. 조건없이 받은 사랑
17. 진짜 그리스도인
18. 소록도 성도님께서 주신 선물
19. 가난하고 고독했던 어느 작가가 우리에게 남긴 쪽지
20. 이쁘게 봐 주세요

3부

하나님 나라

1. 발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
2.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
3. 핀란드 암석교회
4. 그것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5. 무엇이 비극입니까
6. 교회다니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7.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8. 천개의 구슬
9.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
10. 믿음이 주는 용기
11. 가장 많이 남는 투자 '주테크' 합시다
12. 실존하시는 하나님
13.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
14.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삶
15. 가장 행복했던 3년
16.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위로
17. 하나님의 손편지
18. 당신이 없으면 무너집니까
19.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아십니까
20. 향유냄새 가득한 마음



1부

실수와
실패



실수와 실패

누가 제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후회’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통 실수라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실수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품어줬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건축이 초기부터 뜻대로 되지 않고 건축 회사가 부도나고, 공사 현장이 멈추고, 건축비가 부족해 위기를 만났던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였고, 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건축 결과도 처음 계획보다 더 좋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은 실수를 실패로 여겨선 안 됩니다. 세계적 갑부인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Warren Edward Buffett)이 한 대학생의 질문에 답했던 것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 대학생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도 혹시 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손해를 본 적은 있지만요. 그러나 실패는 곧 내게 교훈이 됐고, 다음번 투자를 통해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실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패’와 ‘실수’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라이프교회(LifeChurch.tv)의 크레이그 그로셸(Craig Groeschel) 목사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그 교회 찬양 목사로 부임한 크리스 빌이 이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6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은 그가 이전에 여자 문제로 나쁜 소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런 사람을 부목사로 받은

사실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를 불러 나눈 대화는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 빌은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다 회개했고 해결됐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들을 실토했고 자신이 지은 죄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더 놀랍게도 아직 소문나지도 않은 또 다른 과거까지도 다 고백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중독과 거짓말과 속임수에 빠져 살았던 과거를 남김없이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제 전부입니다. 제가 저지른 일 하나하나가 다 싫습니다.”

그 순간 크레이그 그로셀牧사는 그의 진실한 눈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직시킬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들 부부는 그 어느 가정보다 아름답게 다시 세워졌고, 지금은 교회의 가장 큰 조직을 이끄는 신실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설교 중에 여러 차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부인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했고 그 고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는 이 이야기를 한 후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라면 그와 같은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길이라도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수를 실패가 아닌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수를 선택의 기회로 삼는 사람

미국 라이프교회(LifeChurch.tv)의 크레이그 그로셸(Craig Groeschel) 목사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찬양 목사로 부임한 크리스 빌이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6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에 관한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런 사람을 부목사로 받은 사실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인 크레이그 그로셸 목사에게는 그들 부부와 나눈 대화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됐습니다. 크리스 빌은 그것은 과거의 일이며 지금은 다 회개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들을 실토했고 자신이 지은 죄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더 놀랍게도 아직 소문나지도 않은 또 다른 과거까지도 다 고백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중독과 거짓말과 속임수에 빠져 살았던 과거

를 남김없이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제 전부입니다. 제가 저지른 일 하나하나가 다 싫습니다.”

그 순간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는 그의 진실한 눈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직시킬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들 부부는 그 어느 가정보다 아름답게 다시 세워졌고 지금은 교회의 가장 큰 조직을 이끄는 진실한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 자신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부인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했고 그 고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는 이 이야기를 한 후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라면 그와 같은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길이라도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책감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을 감추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 것인가? 선택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모를 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과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를 평생 고통스럽게 했던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평생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 밋세바를 취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이후에는 그 죄책감을 통해 오히려 성군이라고 불리는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 죄책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절했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책감을 털어내려고 선한 일을 하고 희생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이 결코 죄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에 더 이상 붙잡히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잊지는 마십시오!



영혼의 만선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그만큼 더 행복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장 뒤에는 어두운 면들이 더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도 주지 않은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 행복과 만족은 영이 만족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뛰어난 어부였지만 어느 날에는 웬일인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라

는 바다에서 밤이 가는 줄 모르고 그물을 던지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어부라도 베드로처럼 헛수고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빈 그물로 인해 속이 상해 눈물을 펄펄 쏟으신 적은 없었습니까?

빈 그물로 인해 부끄러움과 열등감으로 절망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만선만을 갈망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후에야 육신의 만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영혼의 만선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빈 배가 갑자기 물고기로 가득한 만선이 된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 기적을 통해 진정한 만선은 영혼의 만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성공이나 실패는 영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부는 하나님의 은혜요, 가난은 마치 저주인 것처럼

럼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향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만선이 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토록 비고 비었던 그물이 자기의 빈 그물, 빈 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혼의 만선을 경험한 성도는 육신의 만선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의 만선이 육신의 만선보다 복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성공은 영혼의 만선입니다.

우리들의 빈 배가 주님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 영혼의 만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느 연구 기관에서 서울 시내 중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질문 중 하나가 “당신은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 학생 2,000명 중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학생은 불과 2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00명 중 27명의 학생만이 자신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3명의 학생들은 자신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거나 있으나마나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런 통계를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있으나마나 한 존재라고 생각하겠

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에이즈로 고통 받는 에스더라는 어린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렇게 참혹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부가 다 갈라지고 터져 버렸습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조차 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스더의 어머니도 에이즈였기 때문에 그 불쌍한 모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하자, 어머니는 바로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통역을 해 주는 기도를 끝까지 잘 듣고는 끝에 “아멘”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모녀는 지옥과 같은 형편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자존감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

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지고 상한 어떠한 마음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망가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상하고 깨진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갈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신의 마음이 깨지고 상한 마음이고 자기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화두는 ‘묻지 마 칼부림’, ‘테러 예고’, ‘갑질’, ‘분노 조절 장애’, ‘보복 운전’ 등 듣기만 해도 무섭고 불편한 말들입니다. 해외에서 들려오는 뉴스들도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전쟁’, ‘재난’, ‘물가 폭등’과 같은 소식들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어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평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때의 일화입니다.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식민지 인도 출신 학생 간디를 아니꼽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자기 옆자리에 앉자 간디

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같이 식사하는 일은 없다네.” 그러자 간디는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라며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약이 오른 교수는 다음 시험 때 간디를 애먹이려고 했으나 간디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자 간디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길을 걷다 돈 자루와 지혜가 든 자루를 발견했다네. 자네라면 어떤 자루를 택하겠나?” “그야 당연히 돈 자루죠.” 그러자 교수가 혀를 차면서 빈정댔습니다. “쫓쫓, 만일 나라면 돈이 아니라 지혜를 택했을 것이네.” 간디는 또 간단히 대꾸했습니다. “뭘, 각자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약이 바짝 오른 교수는 간디의 시험지에 ‘멍청이’라고 써서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없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교수가 아무리 간디를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았던 간디의 평정심을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누군가 마라의 쓴 물 같은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쓴 물을 준 사람과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대적할 것이 아닙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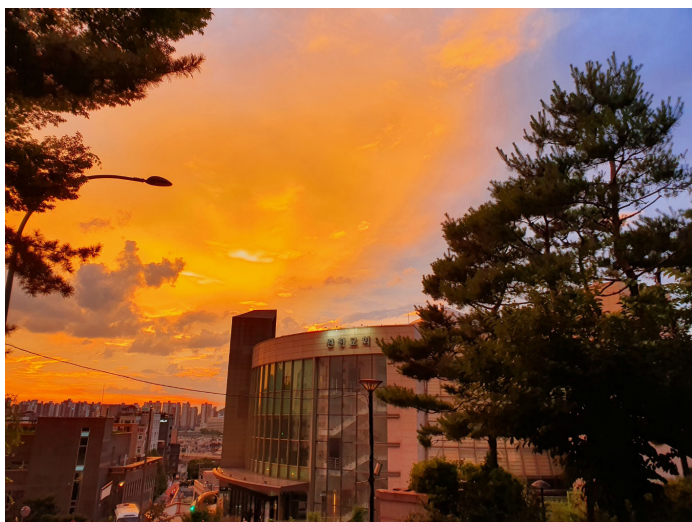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물아홉 살 최연소 나이에 현대 실용 음악의 요람인 버클리 음대 교수에 전격 임용된 김치국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 살 때 심장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다섯 살 때 시력을 잃었으며 얼마 후 완전한 시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버클리 음대와 뉴욕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버클리 음대 뮤직 테라피(Music Therapy) 전임 교수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옆에 간호학 박사이자 교수인 믿음 좋은 부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 속담 중에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레몬을 그냥 먹으면 신맛이 나지만 거기에 설탕과 시럽을 섞으면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되듯이 힘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사건을 새콤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드세요. 시각 장애를 가진 삶은 남들보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저는 늘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해답’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 문제를 쉽게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늘 주위에 도와줄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하

나눔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쓴맛, 신맛을 주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있다면 쓴 물도 달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 갑시다.



비워야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집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쌓아 놓은 그것들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담을 그릇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기울어져 가는 애플의 새로운 경영자로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애플을 위기에서 건질 만한 새로운 뭔가를 하나 더 만드는 일보다 더 다급하다고 본 것이 버리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종에 이르던 생산 품목을 딱 네 가지만 남기고 모두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애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인생의 상태가 위기라고 한다면 더욱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으며 담을 용량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다른 것들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경영학의 기초 서적에서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고 조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재고 조사를 잘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벌고도 뒤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이 백열전구에 적합한 필라멘트 재료를 만들기 위해 2,000여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실험했지만 계속 실패하자 조수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말하기를 “우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는 재료가 2,000가지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린 주 안에서 실패조차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밤새워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실의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주님을 모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배가 빈 배였기에 주님을 모시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배에 물고기가 없어 바닥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은행 잔액은 고사하고 빚더미에 짓눌려 숨도 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가장 비워져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을 때, 바로 그때가 빈 마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그 빈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저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새로운 세대를 향한 변화에 귀를 기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날들이 있는 것 같아도 곧 마지막 날이 성큼 다가옵니다.

이렇게 한 달이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도 곧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이제 더 이상 옛것을 붙들고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버릴 것은 속히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실패의 경험은 훌훌 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18분 늦었습니다

얼마 전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조금 늦게 들어온 학생들의 출석 체크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수업 시작 후 10분 이내 들어온 학생들은 지각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의 눈을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몇 분 늦었나?” 그러면 대부분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8분 늦었습니다”라고 대답하기에 정상 출석 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 친구가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8분 늦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18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에 사는 노숙인 빌리 레이 해리스(Billy Ray Harris)는 2013년의 일을 잊지 못합니다.

길거리를 떠도는 걸인과 같았던 노숙인 빌리에게 기적과 같

은 일이 일어난 해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어느 날, 길을 가던 사라 달링(Sarah Darling)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빌리를 보고 동전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동전을 탈탈 털어 빌리 앞에 놓여 있던 컵 안에 모두 쏟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동전 지갑에 있던 약혼반지까지 모두 그의 컵 안에 넣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다시 그곳을 찾아갔지만 빌리는 이미 그 거리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 빌리는 컵 안에 반지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반지가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보석 가게에 갔던 겁니다. 알아보니 그 반지는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이고 그 자리에서 4,000달러를 줄 테니 반지를 팔라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순간 빌리는 고민했습니다. 그 돈을 받는다면 노숙인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빌리는 반지를 다시 돌려받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에도 초조한 마음의 사라는 빌리가 있던 곳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곤 자기를 기억하는지 물어봤는데 빌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지를 꺼내 그녀에게 돌려줬습니다.

정직한 빌리에게 크게 감동한 사라와 사라의 남자 친구는 곧

그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마다하고 반지를 돌려준 한 노숙인의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모금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억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모였습니다. 빌리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언론의 도움으로 빌리는 16년 동안 연락이 끊긴 형제들과도 재회했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정직한 자와 함께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18분 늦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을 잃으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빅토르 프랑클(Viktor Frankl)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다년간 고생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자유를 얻었고 자기가 수감돼 있는 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해 책을 쓴 분입니다.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동안 함께 수감된 사람 가운데 국제적으로 꽤 알려진 작곡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작곡가가 다가와 던지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의사 양반,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요. 얼마 전 아주 희한한 꿈을 꿔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 보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르

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는 1945년 3월 30일 끝날 거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가 되물었습니다. “언제 끝 꿈이에요?” “한 달 전쯤이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때는 1945년 3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여 일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의 철조망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작곡가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시간이 흐르고 흘러 3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수용소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큼 전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용소 안에서 볼 때는 도무지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곡가는 자꾸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결국 작곡가는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그다음 날까지 그는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프랑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작곡가는 30일 후에 희망을 걸었고 그 희망의 날을 향해 기쁨이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꿈대로 이뤄지지 않자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됐고 결국 그 절망감이 그 몸의 질병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의사들이 말하기를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는 것만큼 치료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신뢰해야 학업에도 진전이 있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만든 요리를 신뢰해야 제맛이 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절망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날을 축복의 날로 바꾸는 사람

로이 로버츠(Roy Roberts)라는 사람은 이른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해군으로 복무했을 때인 1941년 12월 6일 저녁, 그가 탄 배는 진주만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약 15명의 해군 동료들과 배에서 외출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인도자가 “각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말해 보자!”고 했습니다.

한 사람씩 성경 구절을 나눌 때 그는 공포에 젖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외우고 있는 성경이 단 한 구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자기 순서가 오는 와중에 마침내 그는 한 구절을 기억해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바로 옆자리에 앉은 동료에게까지 순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자기가 준비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말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도 인용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수치감과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이 밀려 왔습니다. ‘로버츠! 너는 가짜다(Roberts, you’re a fake).’

다음 날 아침 7시 55분 그는 배의 경적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360대의 일본 비행기가 그가 탄 배와 다른 군사 시설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료 승무원과 함께 기관총이 장착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훈련용 가짜 총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일본 비행기를 놀라게 하려고 그 가짜 총탄으로 목표물을 향해 맹렬하게 쏘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게 됐습니다.

“로버츠! 이렇게 가짜 총탄이나 쏘는 것이 이제까지 네가 살아왔던 방법 아니었느냐?”

그는 일본군이 진짜 폭탄을 자신을 향해 퍼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은 가짜 총탄이나 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보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 후 그는 내비게이토 선교회(The Navigators)를 창설한 도슨 트로트만(Dawson Trotman)과 함께 세계를 품고 사역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생각했던 부끄러운 일이나 실패를 종종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되돌아보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짜 총탄을 쏘면서 적과 싸운 한심했던 로버츠가 전 세계를 품고 사역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것처럼 그 누구라도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날을 바로 그 축복의 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짐 심발라(Jim Cymbala) 목사님은 뉴욕의 빈민가인 브루클린에서 성막교회를 개척해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입니다. 성막교회는 뉴욕의 온갖 사회 문제, 즉 ‘인종 문제, 마약과 알코올, 성매매, 노숙인 문제 등’ 갖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된 동기를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부활 주일 아침에 심발라 목사님은 세 번째 설교를 마치자 몹시 피곤했습니다. 찬양대가 칸타타를 막 끝내고 예배를 마치는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목사님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 집에 가서 쉬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결한 외모에 더러운 모자를 든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50대로 보였는데 실은 31세의 데이비드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을 대하는 보통의 경우처럼 5달러 정도를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자 세상에서 맡아본 적이 없는 최악의 악취가 났습니다. 근처 건물 옆에서 누워 자다가 음악 소리를 듣고는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준비한 돈을 꺼내 그에게 내밀자 놀랍게도 그는 목사님의 손을 밀어내면서 말하길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그 청년에 관한 어떤 것도 다 잊어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짐 심발라’였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손을 들고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싸구려 설교자가 돼 버렸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제게 보내 주셨는데 저는 그저 몇 달러를 손에 쥐여 주고 빨리 쫓아버리려고만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바로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청년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목사님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설교자와 하나님이 필요한 부랑자가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

다.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너는 이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이해할 수 있겠니? 네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다시는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런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다. 코를 찌르는 더러운 모든 인류의 악취로 인해 나는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러니 네가 내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용할 수 없고 선반에 놓아두겠다.”

그 순간 그 악취가 세상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게 여겨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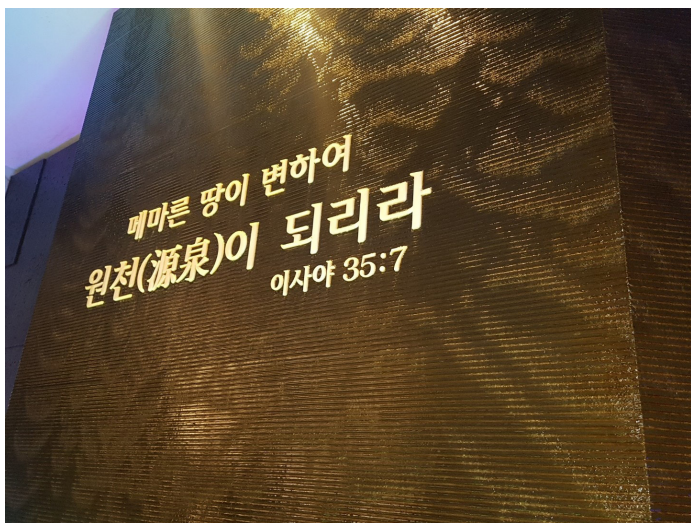
그 후 목사님은 그 청년을 1주간 재활 훈련을 시킨 후 교회 건물을 청소하는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해 그는 추수 감사절과 성탄절을 목사님의 집에서 친구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탄절에 그는 하얀 손수건 하나를 포장 테이프로 감아 목사님께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간증 후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청년 데이비드와 저를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들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냄새가 달라도, 그것이 우리의 세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다른 세상을 위해 여러분들

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신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

오래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을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년의 남자분인데 보통 태양을 30분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태양을 2분만 바라봐도 화상을 입어 실명의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태양을 바라보고도 아무렇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비밀은 그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그는 너무 힘든 일들을 겪고 삶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세상을 스스로 떠나려고 다리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들어 태양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 태양으로부터 주어지는 강렬한 힘을 공급 받았고 그러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때처럼 고개를 들어 태양을 바라보게 됐고 그때마다 거짓말처럼 다시 용기가 생겨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태양을 바라보면 그와 같은 용기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태양을 그렇게 바라보면 대부분 실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그냥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미스터리가 일상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태양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태양보다 더 큰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빛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원하고 강권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런 말은 믿지 못하겠다”고...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주님이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 됐다”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다 무려 세 번째 부도를 당했을 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주님이 보내 주신 한 청년을 만났고 결국 다시 용기를 내 집에 돌아왔고 지금은 큰 기업을 이뤄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다시 일어난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더욱 믿어집니다.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고개를 들고 저 태양보다 밝은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태양이 분명히 존재하듯 주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맙시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 갈 수 없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몸이 작은 편이었지만 고등학생 시절 운동을 많이 했었기에 일단 대학 풋볼(football)팀에 들어가 선수 장학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젊은이는 샘 휴스턴 사범대학에 입학했고 그가 계획한 대로 풋볼팀에 들어가 열심히 운동해 교내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목적인 대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만 졸업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 좋은 코치인 월슨은 그를 불러 진심 어

린 충고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몸이 너무 작아 우리 풋볼 팀에서 너를 키워줄 수 없구나. 그러나 낙심하지는 말아라. 나를 봐라. 나는 너보다 더 작지 않니?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풋볼팀 코치가 될 수 있었던단다. 내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귀하게 쓰신다고 하셨단다. 너는 비록 풋볼 선수로 성공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머리로 좋고 말도 잘하니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가 되면 어떻겠니?”

이 젊은이는 코치의 소개로 한 시골 라디오 방송국에 발을 디뎠고 이후 미국 전역에서 이름을 떨친 앵커가 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 CBS 뉴스의 앵커로 활약하다가 얼마 전 은퇴한 댄 래더(Dan Rather)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계획들을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 ‘공사 중’ 또는 ‘돌아가시오’라는 표지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짜증을 내거나 그대로 돌진해 버린다면 몸과 마음

만 상황 뿐입니다. 그때는 나를 위한 사인으로 알고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돌아가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직진만 하다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이처럼 위험한 일과 돌아가야만 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하기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셔서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난, 질병, 고독, 실패, 공포, 절망, 슬픔 등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가 돼도, 어느 곳에 살아도, 두려움을 피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에 쫓겨 다니면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정체를 발견하고 이 두려움과 싸워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은 내가 상대보다 약하다고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크게 외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낙하점에서의 은혜

토미 테니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낙하점에서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낙하점’은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 지점’을 뜻합니다. 특별히 토미 테니는 그 물체를 원자폭탄과 같은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이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바로 그 지점과 같이 강력한 은혜였을까 생각하겠지만 토미 테니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에게 낙하점에서의 은혜는 그가 가시와 같이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세 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고쳐주시겠다는 응답이 아니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셨을 때 크게 기뻐했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절 앞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속에 감춰진 더욱 큰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낙하점에서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은 낙하점에서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만이 날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favor)’라는 책은 세계적 건축 설계회사 팀하스(TimHass) 하형록 회장은 젊은 나이에 건축 설계 회사인 워커에 입사해 스물아홉의 나이에 중역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부인과 두 딸과 함께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어느 날 심실빈맥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살길은 오직 심장 이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이나 입원한 채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면서 심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약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심장 기증자가 나타난 순간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보다 더 위험한 상황 이었고 똑같은 조건의 심장을 구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하 형록 회장은 의사에게 “만약 저 여인이 심장을 구하지 못하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네, 아마도 이틀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다시 묻기를 “만약에 저는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머뭇거리던 의사는 “아마도 한 달 정도 더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가족과 상의할 수 없었습니다.

곧 그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의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이미 결심이 섰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결국 그녀에게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식을 받지 못한 하형록 회장은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후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났고 그의 심장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는 팀하스라는 회사를 세웠고 사훈을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로 정했습니다. 그런 회사를 하나님은 복을 주셨

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울 때는 놀랍게도 자기를 수술해 준 의사가 하형록 회장을 일부러 찾아서 옮겨간 대학병원의 대형 주차 빌딩을 짓게 되면서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두 번째 이식한 심장도 기한이 다 됐고 심장에 연결된 혈관 두 개가 막혔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심장 이식을 두 번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첫 번째로 옆방 여인에게 양보하고 난 뒤 받은 심장은 의학적으로 버려진 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횡수에 들어가지 않기에만 한 번 더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하형록 회장은 지금도 매일 샤워할 때마다 ‘목걸이(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임을 알리는 표식)’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면서 10여 개 구호단체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형록 회장은 그야말로 폭풍우 같은 절망의 중심에서 오히려 절망보다 더 강력한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낙하점에서의 은혜를 누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절망과 고통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런 낙하점에서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브레이크

극동방송 '사랑의 뜰'을 진행할 때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주제가 '내 인생의 브레이크는 무엇인가?'였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대부분이 물질과 건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브레이크를 잡으시는데 대부분 물질이든지, 건강 악화로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총독 벨릭스로 인해 2년 동안이나 구금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다져졌습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아그립바 왕을 향해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라고 큰소리쳤고 로마로 가는 험난한 길에서 어느새 죄수에서

선장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6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시간에 증오를 키우고 원망을 키우고 나와 분노의 사람이 됐을 텐데 만델라는 오히려 너그러운 사람으로 다듬어져 나왔습니다. 출옥 후 불과 몇 년 만에 대통령이 됐지만 그는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백인들을 사면해 줬습니다.

오늘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도, 가정도, 이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질주하던 분들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꼭 잡아주시는 바람에 오히려 더 잘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어령의 딸로 더 잘 알려진 이민아 목사님은 누가 봐도 복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명문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미국에서 지역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친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혼과 암 투병 그리고 실명과 첫 아이의 사망 등 파란만장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다 나쁜 결과를 낳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도 그녀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외로웠어요. 사랑은 상처가 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위기 속에 자살 충동도 느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알면서 상처들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땅끝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때 쓴 책이 ‘땅끝의 아이들’입니다. 그녀는 그 끔찍한 투병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 6~7시간씩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죽는 순간까지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녀에 하나님이 뵈으신 브레이크가 없었더라면 그녀는 평생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로 몰고 다닐 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가 부족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데 이것만’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을 지켜줄 브레이크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

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안타까운 것, 한 가지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브레이크인 것을 믿고 감사
하신다면 달려도 감사, 멈춰도 감사, 감사로 사는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연탄길’ 1, 2, 3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이철환은 최근 자서전 같은 책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를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두 가지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에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는 밤마다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무섭게 싸우는 부모님 앞에서 어린 자식들은 겁에 질려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처는 이철환 작가에게 평생 극복하기 힘든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심어 줬습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든 것은 아버지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많은 구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매를

맞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한겨울에 신발도 없이 눈밭위로 쫓겨나 추위에 오들오들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 끔찍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아버지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기가 막히게도 이철환 작가 자신에게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작가는 ‘내 안에 살고 있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수도 없이 다짐하기를 아버지처럼 부부 싸움 같은 건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1년에 몇 차례씩 마치 아버지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어린 시절 그런 부모님 앞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자신처럼 자신의 어린 딸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철환 작가는 싸움을 그치고 딸아이를 안고 방에 들어가 한없이 통곡합니다.

또 하나의 아픔은 ‘이명’이라고 하는 건강의 아픔입니다.

양쪽 귀에서 이 아픔이 시작되면 그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은 우울증이 됐고 어떨 때는 무려 한 달이나 집 안에 숨어 면도나 세수조차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아파트 옥상에까지 올

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나 우울증과 이명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쓴 ‘연탄길’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나중에는 텔레비전에서도 소개할 정도가 되더니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대학교와 기업체에서 강연을 하게 됐고 신문과 잡지 등에 수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난 ‘연탄길’은 자신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익금을 ‘연탄길 나눔터 기금’을 통해 여러 단체에 후원금을 보내 앓을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했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고쳐 줬으며 고아들을 돌보고 장애인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양쪽 귀에선 여전히 이명은 들리지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상이 좋아져 견딜 만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도 없어졌으니 오랫동안 먹었던 약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

니다. 주님을 알게 되어 저는 저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어 저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철환 작가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너무나 바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를 뒤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차 한잔 마시며 추억에 잠기는 일은 사치일 뿐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고 짜증 나는 소리를 내는 알람 소리에 피곤한 몸과 힘겨운 싸움을 아침마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정되고 여유도 생기면 이런저런 모임에도 관심이 생깁니다. 젊어서 못 했던 공부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다지 쓸모없는 물건도 사 들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과거를 새롭게 손대고 싶어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초라한 모습을 지우고 새롭게 미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얼굴도 몸도 고쳐 새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작가가 색칠한 또 다른 나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비단 개인의 이야기가 아

나라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본계 미국인인 스테판 다나카는 ‘일본 동양학의 구조’에서 일본의 이런 과거 색칠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가려져 있었던 나라였으나 청나라가 영국에 패한 후 중국 중심의 세계가 재편될 가능성을 보여줬고 불과 몇십 년 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초라했던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자국의 역사를 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동양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중국, 인도 그리고 일본이 동양이라는 자부심을 고취한 후 동양을 서양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했고 심지어 탈아시아를 외치면서 유럽 그리고 세계까지 넘보려고 하는 배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평가에 대해 사람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국가는 결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그런 역사 인식은 침략을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하려는 학자들의 주장과 이를 거부감 없이 변색된 역사를 정말로 믿고 싶어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큰 교회

도 짓고 부흥도 되니 ‘초라했던 과거는 잊어버리자’고 하지 말자는 애깁니다. 이것은 제게 스스로 당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 성전을 짓기 이전의 우리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처절하지만 행복했던 그날들의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새 예배당을 소원하면서 자투리 여백만 보면 스케치했던 나날들, 새 예배당을 꿈꾸면서 했던 기도 릴레이,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옥합을 갠 헌신들, 건설사 보도로 굳게 철문이 닫혀있을 때 더 잘될 거라며 협력해 선을 이루실 거라며, 서로 내 잘못이라면서 부족한 목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울었던 나날들.... 마지막 기성을 내지 못했을 때 이 사실을 안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한 달 만에 교회 한 해 예산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말 거짓말처럼 내신 영화 같은 이야기...

우리, 그날들을 ‘있는 그대로’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날들을 누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부러움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자랑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회의에서 확신으로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큰 은혜를 준 CCC의 국제적인 강연가, 적어도 120개국을 돌아다니며 대략 1000여 군데의 대학에서 2만 4000번 이상의 집회를 통해 10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적인 전도자, 쓰고 공저한 책의 권수가 무려 100여 권이나 되고 판매 권수가 3500만 권이나 되는 베스트셀러 작가, 국제 CCC 안에 세워져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구호단체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GAIN(Global Aid Network)의 사역자, 이런 수식어들이 붙은 사람이 바로 조시 맥도웰 목사입니다.

그런 분이 쓴 책이라고 하면 어떤 강력한 메시지로 메마른 가슴에 불을 붙이는 연설가의 연설 모음집이든지, 지성과 영성에 목말라하는 젊은이들이 열광할 만한 화려한 필체가 돋보이는

책이라고 미리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쓴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한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술주정꾼이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버지와 일꾼인 웨인이라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증오와 미움뿐이었고 결국 사춘기가 됐을 때 폭발하게 됩니다. 어느 날도 평소처럼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달아나는 아버지를 향해 망치를 집어던지면서 큰소리로 외치기를 “언젠가 내가 당신을 죽이고 말 거야! 당신이 잠들었을 때 내가 칼로 찔러 죽일 거야!” 그리고 어머니와 질퍽한 구덩이에서 부둥켜안고 통곡합니다. 이 어린 소년이 바로 조시 맥도웰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청년이 된 조시 맥도웰은 공군에 입대했지만 큰 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던 중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소천 소식을 접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내출혈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돌아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시 맥도웰의 어린 시절은 끔찍했다고 합니다. 정치에 꿈을 가지고 들어간 대학 생활은 나름대로 활력이 넘치는 듯했지만 사실 그 속은 온통 절망과

분노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소유한 행복에 대한 질투가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나타났고 급기야 기독교의 오류와 모순을 찾겠다며 대학 도서관을 뒤지다가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 도서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그를 더욱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그는 로건 목사 앞에서 회심하게 되고 양육을 받던 중 “용서”라는 주제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에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찾은 조시 맥도웰은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어떻게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니?”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 조시 맥도웰은 교통사고를 당해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데 거짓말처럼 아버지가 나타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후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14개월의 짧은 시간을 보내다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 사이 한평생 마셨던 술을 끊었으며 2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자는 마지막 글에서 자신처럼 회의와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의 상처로 인해 정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전에 제가 드렸던 그 기도를 저와 함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브로큰 윈도우 이론 (Broken Windows Theory)

1969년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브로큰 윈도우’ 이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거기에 상태가 비슷한 두 대의 자동차를 1주일간 방치했습니다. 다만 그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 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로 창문을 조금 깨 상태로 놓았습니다.

약간의 차이만이 있었을 뿐인데 1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1주일간 특별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 놓고 차의 유리창을 깨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사라

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낙서, 투기, 파괴가 일어났고 1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 이론’은 후에 세계적인 범죄 도시 뉴욕시의 치안에도 사용됐습니다.

1980년대 뉴욕시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뉴욕시의 치안은 형편없었습니다. 미국 라토가스대학의 켈링 교수는 이 ‘브로큰 윈도’ 이론에 근거해 뉴욕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히 지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낙서가 방치된 상태는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통국의 데빗 간 국장은 켈링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히 청소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는 놀랄만한 제안에 대해 교통국 직원들은 우선 범죄 단속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물론 당연

한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서도 문제지만 우선 그런 작은 문제보다 큰 문제인 흉악한 중범죄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 국장은 낙서를 지우는 것을 철저하게 행하는 방침을 단행했습니다.

지하철 차량 기지에 교통국의 직원이 투입돼 무려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낙서가 얼마나 많았던지 지하철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를 개시한 지 5년이나 지난 뒤에야 낙서 지우기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지하철 치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까지 계속해 증가하던 지하철에서의 흉악 범죄 발생률이 낙서 지우기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완만해졌고 2년 후부터는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놀랍게도 75%나 급감했던 것입니다.

그 후 1994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지하철에서 성과를 올린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시 경찰에 도입했습니다.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빈 캔을 아무 데나 버리는 등 경범죄의 단속을 철저하게 계속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라는 오명을 벗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성경을 읽고 공부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더라도 깨어져 있는 아주 작은 틈 하나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시작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산수 못합니다

얼마 전에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자신은 산수를 정말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며 “산수를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을 경영하실 수 있나요?”라고 묻자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 속에 지금까지도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산수를 잘 하는 사람은 큰 기업을 못하죠! 산수를 못하니깐 불가능에 도전도 하고 그러죠..”

맞는 말입니다. 어느 방면으로든지 다른 사람이 못 해내는 큰 일을 하려면 계산대로 이끌어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식밖의 경제학, Predictably Irrational> 저자 댄 애리얼리는 이성적이지 않은 인간의 행동을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공짜 커피를 한잔 얻어먹으러 가서 몇

만원짜리 케이크를 사가지고 나오는 것, 쇼핑몰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싸구려 악세사리를 받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몇 만원짜리 옷을 구입하는 것, 사은품을 받기 위해 마트에 줄을 서서 몇 시간을 낭비하는 것 등등의 행위조차 행동경제학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수히 많고 많은 그 기업과 점포들을 경영하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더하기 빼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산수가 아닙니다. 계산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라면 교회 건축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산수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교회 건축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노하셨고, 또 기드온에게는 단 300명의 용사만 허락하셨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건축을 시작했을 때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적어도 절반은 준비하고 시작했겠지’,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 저에게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한 푼도 없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계약금부터 빚을 냈습니다’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도 그런지 산수를 다들 못한다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히려 건축 중에 선교비를 증액했습니다. 그 때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는 산수도 할 줄 모르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건축 중에 예기치 못했던 건설회사의 부도라든지 갑자기 부족한 돈을 마련해야 했던 일도 있었고, 건축과정이나 준공을 내는 일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산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소리쳐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산수 못 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가련한 부모들

아주 오래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듯 본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추운 날이었고 비까지 부슬부슬 내려 을씨년스러운 밤이었는데 인부 몇 사람이 맨홀 안에서 나오는데 온 얼굴과 온 몸에 흙이 묻어 있었고 그 좁은 맨홀 안에서 고생했는지 몸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웬지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장면이 마치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제 마음속에 작품으로 걸려 있습니다.

작품명은 ‘가장’입니다.

가장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꾸려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

표를 항상 품 안에 넣고 다니면서도 정년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더더욱 우리나라 가장들은 일하는 이유를 물으면 주저 없이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과로로 인한 40~50대 사망률이 세계 1위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더 안타까운 것은 부인과 자녀들이 매긴 한국 아버지들의 평균 점수는 겨우 56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들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은 어머니들을 너무 쉬운 상대로 여기는지 사사건건 대꾸하고 반항합니다. 모두가 나간 빈방에서 서글퍼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이나 되고 약 10% 중독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무려 7~8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년 전보다 약 2배가 늘었습니다. 그 러는 사이 부모와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학생 자녀의 56%가 부모에게 꼭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이 겨우 “사랑합니다”란 말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그토록 치열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사랑합니다”란 한마디조차 듣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또 하루를 자녀들을 위해 시작합니다.

왜요? 자녀가 삶에 가장 큰 이유요, 보람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가정의 달을 맞아 그런 가련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한마디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부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얼마 전 설교 시간에 본 회퍼(Bon Hoeffter) 목사님이 지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은 본 회퍼 목사님이 순교하기 불과 4개월 전에 약혼녀인 마리아 베데마이어에게 보낸 편지 속에 함께 있었던 ‘시’였습니다. 그 후 1970년 지그프리드 피츠 목사님이 곡을 붙여 독일 찬송가에 실려 전 세계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미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 들어가 유명한 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네가 어찌하여 고난을 피해 여기에 있느냐?’는 음성을 듣고 다시 독일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독일에 돌아간 그는 히틀러에게 대항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모진 고문과 사형 선고를 받아 39세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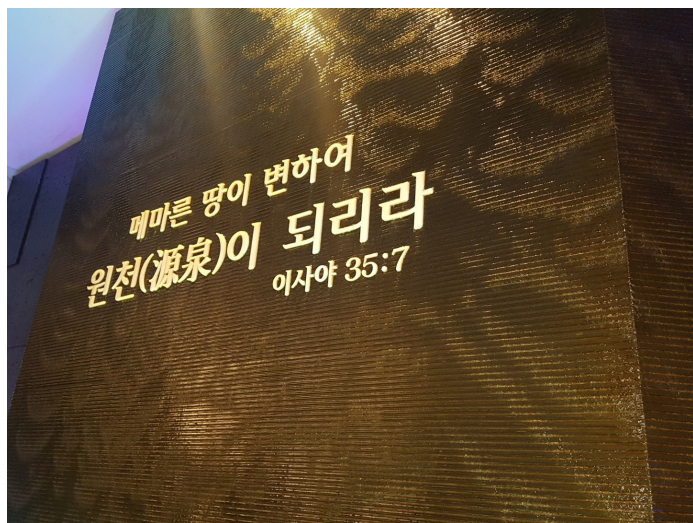
한 영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 같은 유명한 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원로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오래 전 KBS TV에서 진행하는 좌담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원로 교수가 “요사이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이 너무 빨리 개인주의로 흘러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있던 윤태림 전 숙명여대 총장이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서양의 젊은이들은 오래전부터 개인주의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민주사회를 건설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회자는 “김형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고 김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개념의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이기주의로 빠져드는 일입니다. 서구사회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다릅니다. 사회의 모든 책임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 선택과 노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니 책임도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묻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영국의 두 과학자가 아주 깊은 밀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오지를 방문했습니다. 숲길을 더듬어 걷다가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오지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놀라면서 교회 앞에 가니 원주민들이 뛰어나와 반갑게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원주민들을 보니 자신들을 선교사들로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으나 끝까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한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우리에게 잡아 먹혔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당신 같은 백인들이 오면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엄청난 영향력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동네에 세워진 작은 교회는 그 동네에 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 불교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므로, 한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으므로 선한 영향력

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도 행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

1991년 캘리포니아 이스트 베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불탔습니다. 온 동네가 다 불에 탔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특별히 미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생을 두고 그려 온 귀한 작품들이 다 불에 타 잿더미가 됐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계산해도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미술가들이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헌거’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통곡하고 있는 미술가들을 향해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이 불꽃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꽃 속에서도 말 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역사를 일으켰습 니다. 우리도 한번 이 불타버린 재료들을 모아 새로운 작품을 만 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전시회를 하도록 합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잿더미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그러자 미술가들은 그 말에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 타버린 모든 종이와 나무들을 모아 특별한 작품들을 만들었습 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1992년 전시회를 열었는데 수많은 사 람들이 방문하는 역사적인 전시회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 다. 물론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의 가장 힘든 문제는 불신과 증오와 비판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갈 기갈기 찢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육신의 질 병만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함께 가져다준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은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요, 그 희망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을 주

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리더십을 연구해 학위를 받은 제 친구 목사가 제게 귀담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은 보통 다섯 단계로 그 수준을 정하는데, 최고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봐도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는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먼저 가족들에게라도 이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점만 보이면 내가 문제입니다. 내 눈에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한 점만 보이면 내가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 한 구름에서 큰비를 봤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은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손바닥만 한 구름만 봐도 희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이고 절망감이 가득한 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진 한 장 같이 찍어주세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자주 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종종 아프리카 대통령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종종 “목사님! 저와 대통령과 함께 사진 한 장만 찍게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세상 권력자와 사진 찍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왜 그런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답을 듣고서야 왜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찍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야 이런 사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제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선교사를 멀리하고 천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 와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대통령 사진 하나만 걸어 놓으면 모든 잡귀가 다 물러갑니다. 누구도 꿈쩍 못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 놓으면 그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과 친하다는데 누가 감히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권력자도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옵니다. 오히려 그와 찍은 사진이 자신을 더욱 고통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많이 봐 오지 않았습니까?

시편 146:3-5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병원 심방도 자주 가고 장례식장에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그것들은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 모든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 안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재산도, 지식도, 권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마귀의 세력도 그 사람을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예수님과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질그릇과 같지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귀한 그릇이 되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귀한 신분을 얻기 위해,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큰 재산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릇, 즉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큰소리로 부탁 한 번 합시다!

“예수님 사진 한 장 같이 찍어주세요!”

위로하고 축복하는 목회자

얼마 전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계가 다 아는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입니다. 목사님께서 고백하기를 “나는 목회를 하나님만 보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야,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 것이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목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잊고 목회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그토록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이나

물으시면서까지 사랑을 확인하셨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이런 목회자가 돼야 한다, 저런 목회자가 돼야 한다”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들어봤지만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는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목회자인 것을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고민해 보니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잘했다고 인정받았는데 성도들이 찢겨 있다면 과연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상처 입고 울고 있는 가련한 영혼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몇 해 전 미국의 한 교회에서 집회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으나 다름으로 인해 400여 명만 남았습니다. 한분 한분 너무나 좋은 분들인데 그토록 화해가 힘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집

회를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찬양 인도를 하던 부목사님이 갑자기 목이 메어 찬양을 인도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꼈습니다. 나중에 제게 이유를 설명하기를, 교회의 두 파의 리더 격인 두 중직자가 있는데 얼마나 인상을 쓰면서 예배하는지 불편할 정도였고 이 두 사람을 따라 성도들도 양쪽으로 나뉘어 예배드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랜만에 그 두 사람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주일 오후 성도들이 공원으로 소풍을 간다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100여 명의 성도들이 왔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 한 성도님이 안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공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또 다른 성도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또 다른 성도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느새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 광경을 주민들도 보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시간 이상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것은 그동안 겪었던 일

들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위로하고 축복하는 목회자가 되어 사랑의 목장을 만들어 가
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최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영상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름대로 이 시대 목회자와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가 한두 편이 아니라 그분의 최근 설교들이 거의 그런 비판과 책망의 설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비판과 책망을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사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슨 일 때문에 화가나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나 부교역자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초년 목회자로 목회할 때는 그 누구보다 개혁적이고 비판적인 설교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하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소위

기복주의적인 설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신실한 성도를 만들어야지 복 받으란 말씀만 하시지?’ 하면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진짜 목사님이다’라면서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할 때 강력한 성령님의 음성, 아니 책망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마땅히 쫓값으로 징계받는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격적인 위로와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은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내 양들은 세상에서 충분히 맞고 아프단다. 때리는 사람은 많으니 너는 그들을 위로해 다오.’

시간이 지나 지금 그때 했던 제 설교들을 들여다보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 정의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알게 돼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사야 40장을 읽을 때마다 그때의 감동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전에 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고단한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였던 성도들, 믿음이 충만해 충분히 극복할 것 같았던 성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치고

피곤해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초긴장 속에서 살다가 위로받고 싶어 주님의 품에 안긴 성도들, 가난한 생활에 기죽은 성도들, 가정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로 마음이 상한 성도들,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질병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슬며시 찾아온 공황장애와 우울증, 신경쇠약으로 지친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설교는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책망보다 위로하는 말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가르침보다 공감하는 말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얼마나 내 정의를 밝히기 위해 남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는지, 내 의분에 못 이겨 정의로운 척했는지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책망도 위로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모든 이들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들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도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배워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위로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세계적 가정 시역자인 존 트렌트 박사의 저서 ‘축복의 언어’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픔으로 고통받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라이언의 아버지는 해군 함장이었고 자신의 직업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자신의 아들도 뒤를 이어 함장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줄곧 ‘너는 함장이 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군인이기를 바랐고 심지어 집안에서도 군인처럼 행동했으며 집안을 마치 군대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브라이언은 해병대에 입대했고 그것은 아버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군대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불명예제대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해병대에서 불

명예제대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아들을 부끄럽게 여겼고 브라이언도 아버지와 모든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 브라이언의 삶은 그야말로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군인이 아니면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었기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은 매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약혼도 무려 세 번씩이나 했지만 번번이 결혼 직전에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였기에 결혼 직전까지도 약혼자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라이언은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지구 반 바퀴나 되는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아버지와 화해하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나를 안아 주실 거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거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야지.” 그러나 정작 병원에 와보니 아버지는 그가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혼수상태에 빠져들었고 그가 도착한 후 4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아버지 제발 나를 사랑한다고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게요.”

그의 눈에서는 지나온 어린 시절부터 쌓인 오해와 원한으로 가득 찬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아픔이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상실감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브라이언의 모습은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따뜻한 축복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는 아닌지요. 아니 여러분은 그런 아픔이 없는지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을 빌 수 있습니다.

롤프 가복(Rolf GarBorg)이 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에서 저자는 민수기 6장 24-26절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제사장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거절당한 영혼들을 위하여

몇 해 전 한 여관에 투숙한 소녀가 불을 질러 방화범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관에서 불을 질렀지만 정작 자신은 온몸에 끔찍한 화상만 입고 죽지도 못한 채 방화범이 돼 형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수감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때 그 사연을 들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선행이 신문에 기사화돼 제 마음이 참 기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릴 때부터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불과 네 살 때 재혼했는데 자신의 삶이 힘들어 그랬는지 이 어린 딸을 매우 심하게 학대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소녀는 가출한 후 수차례 자해를 하는 등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

합니다. 결국 그 소녀는 한 여관에 투숙한 후 불을 질러 자살을 시도했지만 전신에 화상을 입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방화죄로 소년원에 수감되는 기가 막힌 처지가 됐습니다.

그 소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동시에 이 소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수술이라는 넘기 힘든 고비를 잘 이겨내고, 그다음에는 다시 인생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고 꿈을 가지기 바란다. 네가 출소한 후에는 네가 생활할 수 있는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회사에 취직도 시켜줄 것을 약속하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랑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 집니다. 그러므로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귀하지요.

사람이 당하는 아픔 중 가장 큰 아픔은 아마도 거절의 아픔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은 엄청납니다. 패기만만했던 젊은이들이 여러 직장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도 큼니다.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도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 거절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마치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기억할까? 누가 나를 이해할까? 누가 나를 받아줄까?’라며 찾아 나섭니다. 그때 누구라도 거절당한 그 영혼을 받아줄 수만 있다면 그는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포대교에 가면 교각 초입에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라고 다리가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동상이 있는데, 실의에 빠진 한 남자를 다른 남자가 불을 끄집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힘드십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적힌 전화도 있습니다. 이런 글과 대화들이 외로움과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거절당한 영혼들을 받아 주시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부자도 부르셨고, 가난한 자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도 부르셨고, 이방인도 부르셨습니다.

주인도 부르셨고, 종도 부르셨습니다. 병든 자도 부르셨고, 혈기 왕성한 이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도 부르셨습니다.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도 부르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바울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거절당해 아파하는 상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은 씨앗입니다.

군에 있을 때 부대 근처에 조그만 지하 개척교회에 한 동안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작은 교회였기에 제 눈엔 목사님이 늘 수척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느 외출 날 큰맘 먹고 통닭 두 마리와 콜라를 사서 사택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적지 않게 실망스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10년 정도의 목회를 했음에도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인지 수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개척교회가 안되는 때인데, 너무 늦게 목회를 시작한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도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

님의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목사님보다 더 늦게 개척한 교회들도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목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할 수 없다고 결심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이신 이동원목사님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집안형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데도 가정 교사로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대학입시에도 실패하고 옆친 데 뒤흔 격으로 그나마 힘겹게 버텼던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어 그가 가장이 되어 집안 식구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의 첫 실패와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은 그에게 너무나 힘겨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죽기로 결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전체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를 영여 성경공부 모임을 권유했고, 뜻밖에도 그 모임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암흑과 같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 후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의 간증에는 감동이 있어요. 만약 형제가 주님께 삶을 드린다면 주님은 형제를 놀랍게 쓰실 것 같소!” 이와 같은 말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 듣게 되자, 그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용솟음쳤습니다. 쓸모없게만 느꼈던 나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격려 한 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잠언 18:21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 한 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데로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로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비판도 칭찬도 다시 돌아옵니다.

한 사진작가가 사진 여행을 하던 중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식당 주인이 작가를 알아보고 사진을 좀 보여 달라고 합니다. 작가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아끼는 작품들까지 다 꺼내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다 본 식당 주인이 던진 한마디가 사진작가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진기가 좋아 보이네요. 사진기가 좋아서 그런가, 사진들이 잘 나왔네요. 호호호.”

사진작가는 엄청 기분이 상했지만 껍 참았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자 이 사진작가가 한 수저 들더니 반격합니다.

“음식 솜씨는 뛰어난 것 같지 않은 냄비가 좋아서 그런지 먹을 만하네요. 하하하.”

저는 복수는 어릴 때부터 꼭 봐 왔던 중국 무술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메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이 복수의 칼을 품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술을 연마해 복수의 칼을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요, 회사원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칼은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칼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의 악순환은 절대로 멈출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1-2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땅히 비판해야 할 것이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비판이 결국 내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란 말은 그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니 비판(批判)이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김이섭 명지대학교 교수는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즉, “스티그마 효과”를 경계하고 ‘피그말리온 효과’를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는 ‘낙인효과’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행태가 나쁜 쪽으로 변해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 남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해 낙인을 찍게 되면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의 사랑에 감동해 여인상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귀하고 두려운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비판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입술을 고칩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익숙해 있는 비판과 부정적인 입술을 고칩시다. 우리 입술이 폭력이 되지는 않았나 되돌아봅시다. 오늘부터 칭찬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됩시다. 그래서 남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우리도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복만 구하는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오래전 경기도 광명에서 소위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의 진솔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해외에 계신 분이신데 그때 그분에게 들은 간증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보통의 목사님들처럼 늦게 부르심에 순종해 목사가 되셨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오히려 학비를 벌어야 했으므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가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개척 초기엔 성도라고는 식구밖에 없었고 겨울철엔 조그만 전기장판 한 장에 온 식구가 몸을 붙이고 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사모님이 치는 피아노 소리에 맞춰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세상살이는 힘들었지만 이때만큼은 천국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작은 보탬이 되려고 나가기 시작한 공장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의 손가락이 프레스에 눌러 두 개가 절단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 가족의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의 시간을 이끌었던 사모님의 피아노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다시는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할 수 없다는 서러움보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목사님 내외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된 공장의 사장님 내외는 물론 그 일가친척 9명이 등록했고 그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섭리에 대한 감격보다 등록한 성도 9명을 손가락 두 개와 맞바꾼 것을 오히려 감사하다고 간증하고 감격하는 목사님의 눈물에 마음이 저미는 듯이 아팠습니다. 아니 부끄러웠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내 손가락을 단 하나라도 바칠 수 있을까 하는 자책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목회자로 강단에서 영혼의 소중함을 힘차게 증거해 왔고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설교해 왔건만 정작 저 자신은 그렇게 귀한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투자했고, 얼마나 나를 내려놓았던가를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내 안의 야곱, DNA’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축복에 대한 열망, 영적 이면서도 속물적인 이중성을 지닌 축복을 애타게 소망하는 야곱에게서 내 얼굴이 어른거린다.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렇다. (중략) 이렇게 하늘과 땅이 뒤섞인 야곱의 이중적 면모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나 역시 다르지 않다. 솔직하게 말해 나는 야곱이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말하지만 이기적인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앞서가는 자가 누구든, 즉 그가 가족이든, 교인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속임수로 가로챌 수 있고 그러고 싶고 그러지 못해 혼자 씩씩거린다. 이중적인 대상에는 하나님도 포함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듯하지만 그 하나님은 기실 자기 자신일 따름이다. (중략) (그러나) 내가 마침내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는 야곱이 돼

간다.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주위가 늘 소란스러웠으나 이제 야
곱 한 사람으로 주변이 평화롭다. 야곱은 축복을 구하는 자에
서 축복하는 자가 되었으며 자기와 불화를 빚는 일체의 이중성과
화해했다.’

을가을, 우리 안에도 있는 야곱의 이중성을 화해시킬 수 있
는 좋은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태신자 전도 운동입니다.
을가을에 복을 구하기만 하는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변화하시
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의 능력

오래전 어떤 성도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춘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교양 있는 어머니가 되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꾸중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해 봤지만 아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느끼게 됐고 더 이상 아들과 대화조차 하기 싫어질 정도로 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자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더럽니다. 그래서 아들 머리맡에서 작은 소리로 흐느껴 울었는데 그 모습을 아들이 본 것입니다. 나름 충격을 받았는지 계속 잠을 자는 척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다음 날부터 아이가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방법보다 눈물 한 방울이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니카도 방탕하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성자 어거스틴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1차 전쟁에서 승리한 후 ABC 방송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군 사령관을 초청해 대담을 했습니다. 진행자인 바버라 월터스가 사령관에게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묻자 사령관은 “그것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에게서 따뜻한 눈물이 없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자녀를 위해 우는 부모들의 눈물이 말라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이 말라 가면 자녀의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수능시험과 취업 문제 등으로 잔뜩 긴장해 있는데 그런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어떤 자녀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 여인들이 뒤를 따르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눅23:28)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힘은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눈물은 황폐한 가정을 축복의 땅으로 바꿉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살면서 수많은 슬픈 일들과 애통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찬송하다가 울고 싶으면 우세요.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저것 말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눈

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없는 교회는 기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은 “땅 위에 떨어지는 눈물방울은 하늘의 왕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해보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개혁운동

2017년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한국 교회가 집중하고 목말라하는 이유는 꼭 5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숫자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또다시 종교개혁의 비장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느냐는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주로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을 알리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순한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르네상스와 함께 1000년에 걸친 중세기를 끝내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르네상스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도 사실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르네상스

나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왜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한 기독교 왕국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난받던 시절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을까요? 그것도 목숨까지 걸고요.

저는 초대 교회의 역사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반역자라는 죄목으로 잡혀 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기독교는 본질의 기독교였다는 게 사실입니다. 더 성경대로 살았고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박해받던 시절의 기독교는 오히려 더 세상의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역사도 초대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흡사하다는 겁니다. 중세가 언제부터 인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종교적 박해가 끝난 시점부터 봅니다.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부터는 기독

교를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고 밀라노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불과 100여 년도 채 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얼마 후 서로마제국이 몰락하고 590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등장했을 때부터를 교회사적으로 볼 때 암흑기라고 부르는 중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세기나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기가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박해받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타락이 문제입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한데 이제 자유를 방탕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개혁’을 외치지만 의미나 영향력은 루터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치는 종교개혁은 사실 교회의 개혁이나 신앙생활의 개혁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개혁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개혁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예술 등 모든 분야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교황뿐만 아니라 세상 왕

의 미움도 받았던 이유입니다. 종교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운동입니다.

누구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개혁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보다 나은 두 사람

오늘날 유행어 중 하나가 ‘혼밥혼술’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을 마신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면 불쌍하게 봤는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광경이 됐습니다. 오늘날 사회현상 중에서 가장 우려할 만한 것을 저는 바로 이런 ‘홀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밥혼술’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혼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혼신이란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말합니다. 물론 제가 만든 말이지만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는 540만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은 무려 3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하는데 20년 후에는 70%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너무나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도 키워 보고 반려식물도 키워 봅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을 집에 들여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로 매일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리기도 합니다.

나는 친구가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합니다.

어떤 학원 강사가 올린 글을 보니 어떤 수강생이 모임 때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회원들이 다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한번은 말씀을 조금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외로워 말이 하고 싶어서 학원에 등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사회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라고 넘겨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그렇게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로 선택받아 예수님의 가지가 된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예수님의 몸에 붙은 성도가 된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원수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닌 한 교회 성도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1서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 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성도들과의 연합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열매를 맺고 못 맺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고독한 성도가 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잘 일어납니다. 더 행복합니다. 더 강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아니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두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감당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라

“사람에게 투자하라!”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님이 기독교연합신문에 쓰신 칼럼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이 목사님과 저는 다른 두 분 목사님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140여 분을 초청해 선교사 대회로 섬겼습니다. 저녁에는 세미나와 부흥회를 인도하고 낮 시간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마침 이 목사님이 오셨다고 남매가 인사하러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들을 보자마자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어진 인연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설명은 이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닐라에서 한 시간쯤 떨어진 보홀 섬이라는 곳

에서, 또 배 타고 한 시간쯤 더 들어가는 400여 명쯤 모여 사는 섬에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할아버지와 함께 다섯 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지요. 모슬렘이었던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 버리고 어머니도 섬에서 나가 결혼해 버리고 남겨진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조개도 캐며 근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종우 선교사님이 그쪽에서 나온 신학생 때문에 전도하러 섬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해변을 산책하는데 다섯 명의 아이들이 바닷가 모래 바닥에서 쪼그리고 자는 것을 발견했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처음 열한 살 큰 남자 아이인 자니보이가와 그 바로 밑 동생 엘레인을 어렵게 마닐라로 데려왔습니다. 사실 그 섬은 비사야어라는 말을 사용해 마닐라에서 사용하는 타갈로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이기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울기도 했지만 1년쯤 지나니 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과 다른 신앙, 공부, 명석함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동생들이 보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의 부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 때문에 그 이듬해 그 동생 세 명도 다 데리고 나와 지금은 10년이 지났습니다.

큰 남자 아이는 스물한 살의 어엿한 대학생이 됐지요. 여동생도 대학생이 됐습니다.

예전 우리 교회가 필리핀 단기선교 나갔을 때 이 아이들이 꼬

마였고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돈만 보내고 잊고 살기도 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필리핀 좋은 대학에서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자니보이가를 데려 갔고 이 아이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니?”

“한 6년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럼 그때까지 지원할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해라.”
고 말해줬습니다.

너무 고마워하는 아이들, 너무 애쓴 이종우 선교사님 부부, 같이 간 목사님들은 “아주 아버지네 아버지~”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 노릇은 이종우 선교사님 내외가 했고 우리는 경제적인 지원만 했을 뿐이고 사실 그 지원도 미안할 만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너무나 멋지게 커 뒀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라’, ‘사람을 남기는 게 목회다’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가슴에 확 와 닿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연초네요.

저도 이들을 함께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만남! 그리고 보살핌! 그리

고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어느 교회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 얼른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 담임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어떤 부분에서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느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으나 천국에서 더 목사님을 보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은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목사님 사무실을 정리하

게 뒀습니다. 목사님의 유품들을 정리하던 한 장로님이 목사님의 목회 일기장을 발견하셨습니다. 너무나 궁금해 한두 장 넘기시던 그 장로님은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기장에 있었던 이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유품을 정리하던 다른 성도들도 그 일기를 돌려가면서 읽고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서인지 더욱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사람들을 유치원 때부터 너무 상대방을 이겨야 살 수 있는 도시 정글 문화에 길들여 놓았기에 다른 사람

의 불행이 곧 내 행복이 된다는 공식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동네방네 소리쳐 알게 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신문을 봐도 온통 남의 탓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작은 그룹이나 큰 그룹이나 어느 공동체를 가도 이런 살벌한 비판적 분위기에 우린 더욱 지치고 피곤해 합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허물을 드러내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날 때 내게도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허물이 드러나 비판받는 이를 변호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 전에 드린 예화와 같은 목사님이 더욱 그리운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그렇게 허물이 드러날 때 아무도 내 허물을 가려 주려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가려 주고 심지어 내게 돌아오는 손해가 있더라도 참아 주고 감춰 주는 사람에게는 내게 허물이 드러났을 때 누군가 그 허물을 감춰 준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려 주는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없이 받은 사랑

캘리포니아에 60세가 다 된 베노즈텔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노즈텔 부인은 1000명에 한 명꼴인 특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긴급한 요청이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수혈해 줬습니다. 수혈해 준 이 부인은 나이도 많은 데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한동안 고생해야 했습니다. 더욱 남편을 화가 나게 한 것은, 수혈을 받은 사람이 가족 간에 불화로 갈부림하다 다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저 쓰레기와 같은 인간을 위해 이토록 선한 내 아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바로 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내게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 준 사람인가’ 아니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런데 내게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해 줄 수도 없는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서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요.

어떤 부인이 운전면허를 땀습니다. 운전은 하고 싶은 데 차가 없어 할 수 없었는데 마침 남편이 차를 두고 출근했습니다. 기회다 싶어 나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사고를 내 미안하다고 했는데 남편의 첫 마디가 “차는 얼마나 망가졌어?”였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부인을 걱정하지 않고 차를 먼저 생각하

는 남편과 사느니, 못 사느니 난리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결혼해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만도 못하게 취급당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당할 이유도, 당할 필요도 없는 멸시와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이유는 더욱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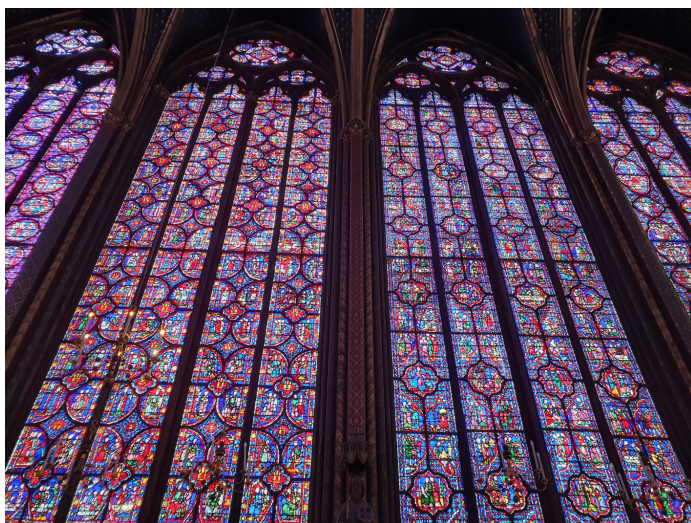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대속 제물이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 동물을 가지고 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대신 그 동물을 죽여 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속 제물이란 죄 사함을 얻으려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제물이 사람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천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요즘은 정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사람을 사랑합시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아무리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사신 자녀입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점점 먼 사람을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오래전에 터키를 여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도시 외곽의 어느 작은 상점에 들어갔는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파는 물건들 중에 이쁜 색을 가진 돌로 만든 조각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꽃병같은 모습이었는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해서 바로 구입을 했는데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버스를 타자마자 일행들에게 자랑을 하니 가이드도 싼값에 산 거라며 거들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잠깐만요!’하고 출발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 조각품의 한 가운데가 금이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 이진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두 동강이 난 것을 본드로 붙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값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곧 상점으로 돌

아 가서 이렇게 장사하면 어떻게 하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미안한 표정도 없이 비슷한 물건을 보여주면서 가지고 가랍니다. 그 물건은 제가 산 물건보다 훨씬 값이 싸 보였으며 더욱이 크기도 작았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보니 본드로 붙인 것이니 싸게 준거 아니냐? 하는 의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씹쓸한 마음으로 원래 산 물건과 주인이 선심 쓴 그 작은 물건을 하나 더 가지고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때 생각을 하면 그 주인의 표정이 떠올라 웃음이 나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두 동강이 난 것을 상품이라고 한국까지 들고 들어온 저는 지금도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그 때 그 상점 주인의 뻔뻔한 표정이 그대로 생각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 그 상점 주인과 같은 표정을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밝은 천국에서 들여다 보실 때 금이 가 있거나 두 동강이 난 모습이라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감추려고 본드로 살짝 붙여 놓은 상태라면 더 더욱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처럼 한 순간이라도 속지는 않으실테니 말입니다. 빌립보서 1: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진실’이란 말은 ‘밀칠하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햇빛에 시험해본

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최대 산업은 도자기 산업이었습니다. 값이 싼 도자기는 두껍고 단순한 반면에 좋은 도자기들은 비교적 얇은 것으로 써 선명한 색깔을 내는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도자기들, 다시 말해 얇은 도자기들은 불에 굽는 과정에서 쉽게 금이 가고 작업 도중에도 잘 금이 가고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도자기 제조자들은 금이 가서 갈라진 틈을 기술적으로 메꾸고 그 위에 물감이나 유약을 발라 금이 간 것을 감추곤 하였습니다. 이것을 “밀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속임수는 햇빛에 비출 때에 금방 탄로가 났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진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서는 속임수로 진실을 위장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행과 봉사, 여러 가지 직분도 밀칠이 되지 않는 순수한 것만 마지막 그날에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소록도 성도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

2008년 3월 11일 소록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농어촌 선교 여행 때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소록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 네 분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기 전 과일과 떡을 잔뜩 사 나눠 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정을 방문했는데 한 집을 방문했을 때는 그야말로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심하게 나 짐작하기는 했지만 직접 대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 집에서 만난 분은 소록도에서도 최고령자에 속하는 분으로 91세 되신 박 씨 성의 할머니였습니다. 두 눈을 다 실명해 볼 수도 없었고 두 손도 엉망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도 없고 이미 손목 부분까지도 다 닳아 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파 지금도 날마다 하나

님께 천국으로 빨리 불러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양손이 다 없고 기력마저 없어 이웃에 사는,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얼마나 감사하며 반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니 동료 할머니를 불러 무슨 통을 하나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지폐가 얼마 들어 있었습니다. 한 십여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할머니는 그곳에 돈이 무척 많은 줄 아셨는지 거기서 우리에게 2만 원씩 주라고 했습니다.

극구 사양했지만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그 돈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늦게 예수님을 영접해 집사 직분도 받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일행을 위해 얼마나 진실하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는지 눈시울들이 다 뜨거워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 모두는 할머니에게 받은 2만 원을 도저히 쓸 수 없어 주머니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이 돈은 2만 원이 아니라 뜨거운 ‘환영의 상징’이요 ‘최선의 보답’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의 가치보다 물질의 양이 더욱 중요하게 취급받는 때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가치는 그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은 그 쓰이는 때에 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둬야 할 바로 그때,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바로 그때, 바로 그런 때가 물질이 가장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제게 2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게 만들었던 그 소록도 성도님. 그 성도님에게 감사하며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저는 항상 2만 원을 넣고 다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천 가족 모두의 지갑 속에도 가장 가치 있게 쓰일 바로 그 ‘때’를 기다리는 2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고독했던 어느 작가가 우리에게 남긴 쪽지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제게 ‘목사님, 뉴스 보셨어요?’라며 토끼 눈을 하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뉴스요?’라고 되물으니 젊은 유명 작가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문 앞에 썼다는 쪽지 이야기를 할 땐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명문 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인 인재로, 유망한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집 문 앞에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라는 쪽지를 써 붙여 놓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녀의 사인은 물론 지병인 갑상선항진증 및 췌장염 등의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해 죽음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쪼디쪼디 작가가 돈이 없어 아프고 ‘배고파’ 죽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굶어 죽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그녀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굶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복지정책’이 문제니, ‘영화계’가 문제니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보다 더 아픈 사람들, 그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왜, 그녀는 그렇게 외롭고 고독했는가?’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를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 쪽지는 이웃에게만 보낸 쪽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게, 바로 우리에게 보낸 쪽지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홀로 사는 소위 '65세 이상 홀몸노인'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사는 소년소녀가정의 수도 2,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이 작가와 같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서대문구에서도 국가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계층도 아니면서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 가정들을 돕기 위해 100 가정의 결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씩 후원하는 일대일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교회가 늘 하고 있었던 일들이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기에 구청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한다니 너무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외치던 구호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한 이 지역에서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한 이 지역에서는 학비 없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없게 하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한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어르신이 없게 하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이 지역을 돌보라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지구촌의 슬픔도 나눠 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신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의 약함도 돌보고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쁘게 봐 주세요!

오래전 미국 리폼드 신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들과 그 유명한 그랜드캐니언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먼 곳에 있었던지 왕복 1,000km나 되는 곳을 하루 종일 달려갔다 왔습니다.

끝없는 사막을 횡단하는 얼마나 지루하고 먼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유명한 그랜드캐니언에 도착해서는 한 10분 쯤 지나니까 벌써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커서였는지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땅이 깊이 꺼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지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한 채 한참을 감탄하면서 넋을 놓

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광객은 매년 그곳을 꼭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관광객은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마다 이처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물을 보는 기능 외에도 이처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가 지닌 독특한 지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그가 가진 지성과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특별히 작품을 보는 안목은 없지만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미술관이나 조각품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보잘것없어서인지 아직도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린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의 예술적인 감각과 경험이 그런 이해가 가능한 전문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가지신 이 사랑의 눈 덕분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어디가 예쁘다고 사랑하셨고 대신 죽으셨을까요? 주님의 독특한 눈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독특한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요? 미워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룰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냥 사랑하며 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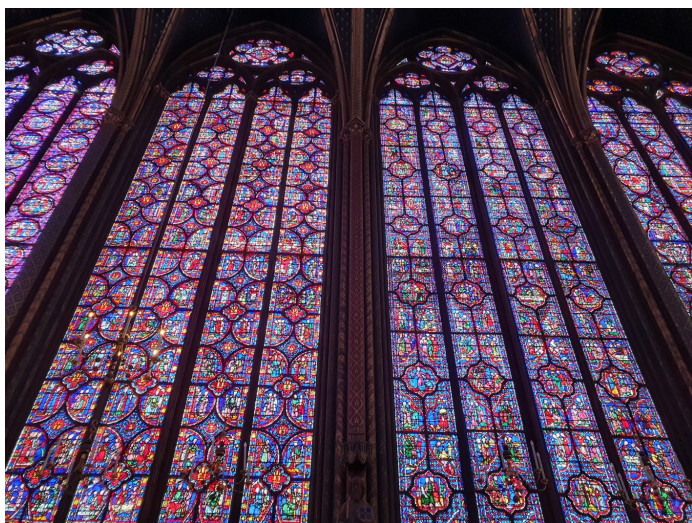
우리 서로 예쁘게 봐 줍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부인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고마워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고마워해

야 합니다. 이웃에게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국가에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독특한 눈으로 맘껏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3부

하
나
님
나
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기억나는 한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았던 기억뿐일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20대 초반 나이가 됐을 때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나 쇠약해져 병원에 입원해 보니 폐결핵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태라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을 오가면서 같은 병원에서 남자를 만나 사귀게 됐는데 빨리 집을 나와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급하게 결혼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남편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술주정뱅이에 폭행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죽는 것밖에는 탈출구가 없다는 생각에 몇 차례나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했던 예배를 통해 집사님은 삶에 한 줄기 희망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집사님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린 복음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남겨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기도와 전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언제 교회에 와도 집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했던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엔 숨을 헐떡이다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쉬게 될 때면 그 집의 문고리를 잡고 쓰러지면서도 “주여 이 집을 구원하소서”라면서 그 집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야말로 남은 삶을 필사의 노력으로 불태웠습니다. 그를 곁에서 지켜보는 성도들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렇게 보낸 3년여의 삶을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 보지 못했고 남편에게조차 사랑 받지 못했던 한 가련한 여인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유일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그 감격에 매일매일 울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1994년 6월 3일 금요일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전도하다가 집에 돌아온 후 조용히 찬송을 부르다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집사님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그 집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깨끗이 적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쓴 유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 의로 구속함이 내게 가능해졌습니다. 말씀대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그토록 강팍하던 어머니도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문득 복음서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기쁨으로 오늘도 힘 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

얼마 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김민정 권사님은 외아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남편도 없이 홀로 오랫동안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외아들은 안타깝게도 예수전도단 킹스 키즈를 인솔하고 몽골로 단기선교를 갔다가 급류에서 순교한 두 청년 중 한 명인 고(故) 김광진 군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의 기념비를 세우러 몽골에 가 두 사람의 순교가 지금도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광진 군이 사역하다가 순교한 그 지역 교회는 몽골 현지 사역자가 목회를 하는 교회로, 너무나 약해 1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건물도 없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가 간증을 했는데 당시 너무 어려워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났고 그

교회는 그 일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고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얼마나 선교에 열심인지 광진 군의 시신이 국경까지 흘러갔는데 그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에게 그곳까지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광진 군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붙인 후 저녁에 몽골 청년들의 찬양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놀랐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 공식적인 기독교인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린 그 몽골 청년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광진 군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진 군을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은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가족들과 포옹할 때 우리보다 더욱 큰소리로 울면서 우리를 안아 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순교자로 바친 권사님은 늘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아들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어렵게 사셨지만 언제나 교회에서는 밝은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밝고 건강한 영혼

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위 분들에게 자신은 지금도 행복하고 죽어도 천국 가서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소원을 들으셨는지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들어보니 정말 권사님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동생에게 전셋집을 팔아 달라는 유언과 함께 그 돈으로 세 가지를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장례식에는 그 누구에게서도 부의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가장 어려운 동생을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동생들은 그래도 좀 나오니 미안하다고 전해 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전세금의 절반이 되는 돈을 교회에 헌금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언으로 동생들이 모두 교회에 등록할 것을 부탁했고 올케 분이 그 유언대로 먼저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동생들과 가족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특별히 부활 주일인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부활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

나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5:9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가 되기를 힘쓰노라’라는 말씀대로 사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밤마다 울며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이 땅
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백성이 있
는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계 선교와 또 선교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
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저것 말들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눈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없는 교회는 기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섬기시는 직분자들에게 눈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직분자들을 세워 주신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올라고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핀란드 암석교회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핀란드어 ‘템펠리 아우키오 키르코’. 우리말로 해석하면 ‘암석교회’라는 뜻입니다.

헬싱키시 중심에 자리한 암석교회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 만든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헬싱키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헬싱키 제일의 명물이 됐지만 이 교회는 사실 생겨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시 조례상 도심 한복판에는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터교회 성도들은 헬싱키 도심에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겠다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축가인 수오말라이넨 형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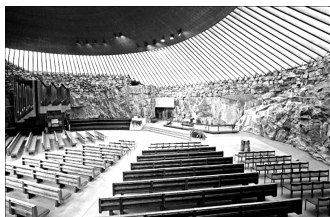
도심 한복판에 아무런 쓸모없이 방치된 거대한 바위가 있어 흙물이었는데 바위를 그대로 둔 채 그 속을 파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니 시당국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건축안대로 통과돼 거대한 화강암 바위 안을 뚫어 그 안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둘레는 다 암반이고 윗부분은 다 들어내 유리 천장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암석교회는 1년 7개월간의 건축 기간을 거쳐 1969년 9월 완공됐습니다.

이 교회는 암석으로 둘러진 독특한 내부 상태 때문에 오히려 훌륭한 음향 효과가 생겨 각종 음악회를 여는 헬싱키의 문화 공간이요, 자랑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암석교회의 외관과 실내 전경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설마 오래가겠어?’ 했던 팬데믹 상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지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큼니다.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해 버리는 사람들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다른 오해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무려 10%가 넘는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가 지나가더라도 전염병이 남긴 상처는 깊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목회자들은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두려워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던 성도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로 불러 모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과 믿음으로 교회를 출석했던 성도들의 갈등도 보이지 않는 염려입니다.

지금 교회는 마치 거대한 암석 앞에 선 교회처럼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암석교회는 그 암석을 장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암석 속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

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암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일은 이런 암석 같은 고난이 그토록 회개를 외치던 그 소리를 외면했던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았던 일들에 목숨을 걸었던 우리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고난도 결국에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이 암석 같은 고난도 유익했다고 평가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암석 같은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어느 목사님이 후배 전도사님으로부터 주일 밤 예배 때 설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기로 약속하고 가기로 했던 날씨가 가까웠을 때 그 후배 전도사님으로부터 성경 본문과 제목을 알려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알려줬습니다. 전도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받아 적으면서 “그다음은요?”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주일에 뵙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돼 교회를 찾아가 반갑게 맞는 전도사님과 교인

들과 인사한 후 건네주는 주보를 받아 들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자리에 앉아 주보를 펼쳐 든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 시편 23:1-6’, 문제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도사님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센스없는 후배 전도사가 밉기도 했고 이렇게 웃긴 설교 제목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기가 막혔습니다.

찬송하면서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도 제목을 바로잡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설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자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 제목대로 설교하자!’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라고 외쳤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그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이 공허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

를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충격적이고 기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긴 공허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한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예배 출석률이 평균 50~70% 정도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더 더욱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지만 결국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곳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준비하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무엇이 비극입니까?

얼마 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엄청난 군중 앞에서 설교하신 동영상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얼마 전 자신이 알고 지내던 루비 엘리아슨(Ruby Eliason)과 로라 에드워드(Laura Edwards)가 카메룬에서 자동차 사고로 함께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비극이구나’ 하는 표정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곧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루비 엘리아슨은 간호사로서 한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가장 가기 어렵고 힘든 곳에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했고, 로라 에드워드는 의사였는데 은퇴한 후 루비와 파트너가 돼 카메룬에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역 중 브레이크가 고장 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80대 고령의 두 자매님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버 목사님은 청중을 향해 큰소리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 두 여인의 삶이 비극입니까? 그녀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도 카메룬에서 의료 사역을 했던 그들보다 무려 20여 년 전에 은퇴한 후 플로리다와 뉴멕시코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위해 삶을 쓰고 있었는데 이들보다 20여 년을 귀하게 사용하다가 한 순간에 저 천국으로 날아간 그들의 삶이 왜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진짜 비극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50대에 은퇴한 사람이 인생을 즐기는 기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로 마음껏 여행을 즐기며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우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이를 콕 집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이 제가 평생 모은 것들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 보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낙심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들의 초청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이 잘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남은 인생을 정말 잘살아 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을 찾아가 “이제 나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꼭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날 용서해 주겠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를 부둥켜안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 좋은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도 평생 하지 않았던 “사랑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녀들보다 먼저 집에 와 아이들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복음성가 중 김석균 씨가 지은 ‘주님의 빛진 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평생 갚아도 빛진 자 되어 주님의 빛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 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 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교회다니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오래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불교방송을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신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님들은 하나같이 불상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있고 신도들은 하나같이 그 불상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나무로 만든 불상을 신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 불상은 불에 타고 썩는 나무에 불과한 것이다. 이 불상이 부처가 아니다.’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님 중에서도 이렇게 신도들에게 삶의 갱신을 외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지가 아니라 정말로 믿는 자세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볼 때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육체를 따라 살던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본능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 자기의지와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경계선을 넘

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육체를 따라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육체에 참패해 슬프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성령을 따라 좋은 결과를 얻고 감사하며 찬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열매, 즉 결과가 말해 줍니다.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해도 성적이 증명해 줍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했다고 말해도 경기 결과가 증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잘살았다고 말해도 그 인생의 열매가 증명해 줍니다.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인생은 두 부류의 삶을 살고 그 결과 또한 두 부류입니다.

그 인생의 열매가 육체를 따라 산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약하고 육체가 약한지 압니다.

마음은 날마다 결심하고 다짐해 보건만 날마다 무너지는 내 삶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죄를 짓고 가슴 아파해야만 할까요?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옛 생활, 옛 습관, 옛 생각들, 한마디로 육체를 따라 살았던 과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천가족 모두는 주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명지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지만 학생들의 약 80~90%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명지대학교에서 제가 교양과목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한번은 학생들이 직접 독서보고서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몇 주에 걸쳐 발표하는데 장○○ 학생이 발표한 것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 학생은 독서보고서를 다 발표한 후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90%가 믿지 않는 학생들 앞에서 당당히 간증했습니다. 학생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부모님도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는 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부모님도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

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았답니다. 많은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은퇴하신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는데 절대로 깨어날 수 없으니 가족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학생은 비록 할아버지의 소원대로 교회에 다시 나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울면서 어머니 앞에서 할아버지가 그냥 저렇게 돌아가시면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단 몇 분만이라도 깨어나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하자 어머니가 “네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겠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던 교회였지만 그날부터 약 두 달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교회에 가 울면서 ‘하나님, 할아버지를 단 몇 분만이라고 깨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 달려가 보니 할아버지가 정말 거짓말처럼 의식이 잠시 돌아와 손자 손을 꼭 잡으시더니 “장○○야, 너는 꼭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시고는 다시 의식을 잃으시더니 두 시간 후 하나님 나라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게 됐고 얼마 전에는 방언까지 받았다고 담대하

게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의 간증을 듣고 이 학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했던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앨라배마 주의 어느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어느 날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설교 준비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 동네로 가 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감동대로 순종해 한 젊은이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놀랍게도 그 젊은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집에 달려가 아버지에게 알리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아, 나는 24시간 전에 너의 구원을 위해 너무도 큰 마음의 짐을 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 네가 구원받기까지는 음식이나 물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단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우는 부모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

습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근심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천개의 구슬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자신의 경험을 책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번은 제프리 데이비스가 쓴 ‘천 개의 구슬’이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답니다.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노년에 접어들 즈음 항아리에 수백 개의 구슬을 넣었습니다. 각각의 구슬은 그가 평균 기대 수명까지 산다면 앞으로 남은 일주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슬을 볼 때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었을 당시 존 맥스웰은 60대 중반이었는데 자신도 그 주인공처럼 구슬을 채운 항아리를 사무실에 놓고 자신도 남은 시간을 열심히 사는 데 원동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친구이며 목사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는 맥스웰을 잠시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존, 정신머리를 구슬과 바꿔 먹은 것 아니에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세상에 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남은 시간을 세고 있었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슬 항아리에서 구슬들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날,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밥만 먹을 수 있다면 남의 집에 종으로든 들어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최고 화두는 아마도 건강일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어도 건강을 걱정하고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행복이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걱정하고 수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로 번역된 ‘헬리키아’라는 단어는 ‘생명’이라

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를 그치고 대신 마태복음 6:27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몇 해 전 수요일예배 강사로 오셨던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머님의 유언에 관해 들었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남겨질 자녀들에게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잘하고 와’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다시 만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은 사명의 복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도 같은 명에를 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몸도 마음도 다 낡은 옷처럼 헤어질 때까지 사명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Clive Staples Lewis)는 두 가지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책을 이용하는 독서”, 또 하나는 “저자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독서”라고 말합니다.

첫째 독서법이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은 보통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늘 그래왔듯이 사람들의 고집스러움이 분열과 불통과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적어도 영혼과 생명과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면 치명적입니다. 모든 책이나 모든 교훈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고 삶에 길이 되는 책이나 교훈은 ‘받는 것이 복입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요 목회자요 저술가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Eat This Book)’란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책을 통해 성경의 기록과 번역의 과정 그리고 중세 기독교로부터 오늘날의 기독교까지 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줍니다.

하지만 그의 저술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일관성 있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한스라는 어린 손자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후 박물관에 가기로 했는데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있을 때 한스는 할머니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더니 코앞에 들이대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너무나 경건한 자세로 성경을 읽더랍니다. 그 모습을 기특하게 보고 있는데 한참 후 책을 덮더니 “됐어요, 할머니 이제 가도 돼요”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큰소리로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스는 아직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듣습니다. 또 경건한 자세로 깊이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어린 손자 한스처럼 그 말씀이 한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씀이 양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가 들고 있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달라고 하니 천사가 ‘갹다 먹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9-10 ‘천사가 이르되 갹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갹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의 느낌은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뱃속에서부터 쓴맛이 올라옵니다. 마치 약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화하기 힘든 말씀, 읽기 거북하고 순종하는 더더욱 어려운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 많은 성경 독자들이 말씀을 먹는 말씀에서 다시 읽는 말씀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곧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48-50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양식과 달라 생명의 떡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어야만 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먹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순종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주일 받은 말씀을 한 주간 살면서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고 소화하기 어렵더라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는 것을 ‘영적 독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주는 용기

얼마 전 연합뉴스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 주(州) 팔메이라시에서 영화 ‘스파이더 맨’에 나오는 거미 인간의 복장을 한 다섯 살에 불과한 리켈메는 실제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집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1년 10개월 된 아기를 구해냈다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리켈메는 평소 ‘스파이더 맨’ 영화를 열광적으로 좋아했고 그 날도 골목길에서 거미 인간 복장을 한 채 놀다가 이웃집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뛰어들어 잠자던 아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소년은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정말로 ‘스파이더 맨’이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불과 다섯 살에 불과한 소년이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 수 있었겠지요. 이것은 도저히 평범한 다섯 살 난 어린이의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의 행동에 관한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년의 용기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은 “재가 미쳤지? 죽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애들은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해야 돼” 등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그 아이는 귀한 한 생명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 앞에서 어떤 이도 이 아이의 행동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분명히 한 가지 믿음만큼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파이더 맨은 정의의 용사다. 스파이더 맨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스파이더 맨이다!”

어찌 보면 정말 우스운 사건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도전을 받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소년에게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입을 수 있

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소년과 같이 불구덩이 앞에서도 그런 믿음을 말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불구덩이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불구덩이, 물질적인 불구덩이, 가정적인 불구덩이, 육신적인 불구덩이 등 많은 위기와 시험의 불구덩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기도했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소년과 같이 그 문제의 불구덩이를 향해 돌진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17-20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제 이 어린 소년과 같이 ‘믿음이 주는 용기’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파이더 맨이다”라고 믿었던 이 소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믿음으로 산다면 아무리 두려운 세상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이 남는 투자 ‘주테크’ 합시다.

한때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재테크(financial technology) 열풍’이 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197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가 그 열풍을 주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된 전문인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재테크를 주도하는 것과 달리 그때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직장인, 주부, 심지어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까지도 집을 산다, 땅을 산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던 때였습니다. 물론 주식 붐을 타고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거머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동산 만큼 강력한 재테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열풍은 사실 최근까지도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 판교 신도시 청약 통장이 무려 8,000만 원에 암거래됐고 평균 50 대 1, 최고 2000 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사람은 로또에 당첨됐다는 축하를 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부동산 재테크는 열풍은커녕 싸늘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가파른 곡선을 긋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침체됐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부동산 재테크 열풍은 2007년 4월 미국 2위 모기지 업체 뉴센추리파이낸셜에 이어 8월 10위권 업체인 아메리칸홈 모기지가 파산 신청을 했고 1년 만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라고 할 수 있는 리먼브라더스라고 하는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용경색에 빠졌습니다. 저마다 안전 자산만 찾아 나섰고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 자산은 일찌감치 처분했습니다.

이 엄청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또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극심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금융위기는 주택 담보대출에 직격탄을 날렸고 떨어지는 집값에 비해 솟구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피해는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는 보통 사람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일해 일정액을 다달이 부어

투자한 집이 노후에 든든한 힘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집이 오히려 빚을 가져다준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뜨거웠던 부동산 열풍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는 재미있는 ‘재테크’에 관한 글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테크’였습니다.

미국인 7,000명을 대상으로 한 9년간의 추적 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흡연량이나 음주량부터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세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외의 진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담배나 술은 수명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색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마침내 밝혀낸 장수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친구의 수’였다고 합니다.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쉽게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 수명 연장을 위해 친구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투자한다는 말은 정말 훌륭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

투자는 그리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 복잡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 친구를 찾고 친구가 어려울 때 찾아가 도와주고 친구가 슬퍼할 때 찾아가 위로해 주고 힘들 때 조금만 부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들이 힘을 모아 나를 붙들어 주고 세워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친구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마음은 있어도 몸도 손도 그리고 능력도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영원한 가치를 두고 최고의 재테크가 될 투자는 어떤 투자일까요? 저는 그런 재테크를 ‘주테크(ministry technology)’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어는 곧 경제학 용어 사전에 수록될 것입니다>(*주;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 재능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재테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주테크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용기를 내 보십시오. 아마도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남는 장사를 했구나~’

실존하시는 하나님

‘라비 재커라이어스 국제사역센터’ 총재 라비 재커라이어스(Ravi Zacharias)는 자신의 책 ‘아플수록 더 가까이’에서 어린 시절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그가 어렸을 때, 1950년대 당시 유명한 미국의 운동선수인 제시 오언즈가 인도를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렸던 그는 오언즈의 일거수일투족에 푹 빠졌습니다.

오언즈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의 억압과 협박 속에서도 4관왕에 오른 인물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언즈의 팬 사인회에 참석한 그는 오언즈의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했는데 오언즈와 악수까지 하게 됩니다. 오언즈가 자신의 이름을 물어본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떨리는 마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남의 감동이 너무 커 그 이후로는 두 가지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언즈와 악수했던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한 번씩은 ‘이 손은 오언즈와 악수한 손’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도 그 말이 지겨웠던 친구들은 “너와 오언즈 중 하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오언즈를 기억하고 사랑해도 그와 자신의 관계는 영웅과 팬 사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는 그의 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임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는 오늘날 기독교가 위축되고 무기력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믿음, 즉 ‘선택의 은총’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

합니다. 한마디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가 지적한 대로 사실 교회 내의 문제도 많습니다. 시대가 탈종교화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선택해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시란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은데 특별히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이 크게 위로받고 용기를 내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독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

므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책에서만 아니라, 듣는 말씀 속에서만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

멕시코 어떤 마을에는 온천 옆에 냉천이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서 빨래를 하는데, 먼저 빨래를 뜨거운 물에 삶은 뒤 바로 옆에 있는 냉천에서 깨끗하게 행구는 식으로 편리하게 빨래를 합니다. 그렇게 빨래하는 모습을 본 어느 관광객이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더운물과 찬물을 동시에 주시니 말입니다!”라고 말하자 놀랍게도 그 여인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비누까지 주셨어야죠”라면서 불평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집중하면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신 일일 겁니다. 무엇을 사 주더라도 다른 아이보다 좋지 않은 것을 받았을 때는 난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사 주지 않았더라면 아무 소동도 없었을 텐데 사 주고도 화가 나 아이들을 야단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주위를 돌아봅니다.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만약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조차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서 감사할 만한 상황인가’ 생각해 보고 감사하려고 한다면 한평생 살면서 감사할 날들이 없을 것입니다. 위의 예화처럼 비누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

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복 받게 하시려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 기고한 전문의의 글 가운데 치료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차이를 밝힌 글이 있었습니다. 치료가 빠른 사람은 첫째, 긍정적인 사람. 둘째,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 셋째, 병원의 지시대로 따르는 사람. 넷째, 신앙을 가진 사람. 다섯째,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첫째, 부정적인 사람. 둘째,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셋째, 의사를 무시하는 사람. 넷째, 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 다섯째,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그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믿음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만큼 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삶

직장 상사 중 한 사람은 부하 직원들에게 말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어깨나 가슴을 쿡쿡 찌르면서 말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 상사와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어떤 직원은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찬가지로 그에게 늘 구박받던 한 직원이 회심의 미소를 띠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 “오늘은 그 아무개 상사가 손가락이 사라지는 날이다”라고 끔찍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고 만류하듯 문자 양복 안을 펼쳐 보이는데 그 양복 안에 폭탄이 달려 있었습니다. 경악하는 직원들에게 이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 멍청한 아무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를 거예요. 그러면 이 폭탄이 ‘펑’하고 터질 거예요.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누가 더 바보인지는 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겠지요.

사람의 감정 중 어쩌면 가장 해결하기 힘든 감정이 있다면 미움일 것입니다. 사람이 미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은 자신입니다.

미워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고 삶이 망가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이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미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인 동시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2: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 복을 받는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4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됐고 테레사 수녀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 그리고 교황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비결을 ‘감사 노트’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10대 소녀 시절에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자신도 미혼모가 되는 등 마약과 감호소 생활 등으로 얼룩진 과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감사 기도’가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매일 매일 ‘감사 노트’에 하루 세 가지 감사를 억지로라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속 분노와 미움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감사 다이어리’에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만나는 이들에게도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3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기억나는 한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였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부터 학대받으면서 자라 정신적·육체적으로 쇠약해져 1990년 겨울 병원에 입원해 보니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 퇴원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을 오가면서 같은 병원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그 남편은 아버지보다 더욱 심한 술주정뱅이에 폭행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교회로, 기도원으로 달려가 밤새도록 절규하는 기도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던 중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됐고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교회 전도대에 가입해 매일 노방전

도를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엔 숨을 헐떡이다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쉬게 될 때면 “주여 이 집을 구원하소서”라면서 그 집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야말로 남은 삶을 필사의 노력으로 불태웠습니다. 그를 곁에서 지켜보는 성도들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렇게 보낸 3년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3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 보지 못했고 남편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했던 한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서 자신의 유일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감격에 매일매일 울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권찰의 직분까지 받은 1994년 6월 3일 금요일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전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조용히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깨끗이 적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는데 임종 직전에 쓴 유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 의로 구속함이 내게 가능해졌습니다. 말씀대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 후 한 달 후 그토록 강박하던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누린 가장 행복했던 3년은 고달픈 세상 속에서 누린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위로

추석 같은 명절에는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니 버스·기차·비행기표를 구하기가 어렵고 길이란 길은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달려갈까요? 그것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이동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자식들을 보내신 부모님은 명절만 되면 언제 자식들과 손자·손녀들이 들어올까 문 쪽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러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야 고향이 고향이 된

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서 찾아볼 분이 없는 고향은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했을 때 어느 사연을 읽다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추석이 되면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송편을 너무 기다렸는데 어느 해는 아버지가 가게에서 파는 송편을 사서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였으니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생각은 못 하고 ‘엄마가 만든 송편이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렸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아파서 그래, 미안하다. 곧 일어나면 송편 만들어 줄게”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 영영 어머니의 송편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곧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더 슬프게도 아버지마저 6개월 만에 어머니를 따라가셨습니다.

그 후 20여 년이나 지났지만 추석만 되면 그날 철없이 굴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더욱 부모님 생각에 마음 아파하실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언제나 펴 주지만 하시는 부모님은 이 세상 모든 자식들에게
더없이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본문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녀 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치 명절에 자식들에게 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부모님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식들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자는 아마도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무조건 자식 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
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위로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 같이 위로받을 길이 없는 불쌍한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 넘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6: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
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참된 위로는 예루살렘에서, 즉 하나님의 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힘 있는 사람도 많
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그런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 것이 든든하기

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거절의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그의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이들에게 외면당했을 때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가장 고통스럽고 고독한 그때 영의 눈이 열려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평생을 함께한 가족처럼 매일 매일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분이어서 감격하

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고달파 그럴 수도 있고 예기치 않았던 불행이 찾아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편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동네 문구점에서 산 값싼 패널과 캔버스에 그림이나 시를 쓰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경 그림을 그린 후 그 뜻도 잘 모르면서 윤동주의 ‘서시’라든지 한용운의 ‘님의 침묵’ 같은 시들을 한껏 재주를 부려 써 놓고는 스스로 대견해서 여기저기 걸어 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유행했던 글체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독창적이기도 했고 똑같은 글체가 하나도 없었기에 우리는 글쓴이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글씨를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편지도, 일기도, 패널과 캔버스 위의 정겨웠던 작품들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과제물을 다 손글씨로 써 제출했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원에 들어가니 갑자기 타이프를

쳐 과제물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자 타이프를 어렵사리 장만했는데 또 조금 지나니 다들 컴퓨터로 과제물을 제출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컴퓨터로 찍혀 나오는 글자들이 멋있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뭔가 있어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손으로 쓴 글씨가 그리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카드도, 안부 문자도, 이메일도 하나같이 컴퓨터 글자로 찍혀 들어오니 어떨 때는 단체 메일 같은 경우는 보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손으로 쓴 정감 있는 편지나 카드를 받게 되면 너무나 신기하기까지 해 한 번 더 읽어보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손 글씨로 보고서를 쓰고 편지를 썼던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 길들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끔은 손으로 쓴 진짜 글자를 보고 싶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인지 오늘날 다시 손 글씨의 부활이 나타났습니다. 손 글씨를 하나의 디자인 영역 속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디자인 전성시대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까지 디자인의 영역이 됐습니다. 특별히 ‘문자는 가장 강력한 디자인’인 시대가 됐습니다.

디자인된 문자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들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라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소위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큰 강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도 물을 마시지 못해 갈증을 겪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원인 중 하나가 말씀이 너무 흔해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고 개혁을 단행한 것과 같은 감동이 사라진 것이지요.

초대 교회 당시 바울의 편지를 들고 그 멀고 먼 길을 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조용하지만 강하게 낭독하는 편지를 들었던 감동이 사라진 것이지요.

지금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손으로 써 간직해 온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들여다보는 감동, 이불을 뒤집어쓰고 듣는 복음 방송을 듣는 감동이 사라진 것이지요.

활자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써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는 듯한 감동을 받을 수 있
을 줄로 믿습니다.



작품명: 환천(渾天)
작 가: 민용홍교수

“당신이 없으면 무너집니까?”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김철기·허운석 선교사님 부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들입니다.

한번은 선교사님을 통해 아마존에 성 가브리엘교회를 세우고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 부부가 이루신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넓은 부지에 세워진 신학교와 교회와 여러 건물들 그리고 의료와 구호 사역을 하는 아름다운 병원선까지 타고 사역 현장인 여러 섬들을 돌아봤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의 헌신과 사역들은 실로 철인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부인인 허운석 선교사님에게 암이 생겼고, 수없는 치료와 재발 그리고 또 다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010년 초에는 허 선교사의 폐암이 재발되고 김철기 선교사님은 여러 번 한국에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기를 “선교사가 선교지를 이렇게 비워도 되는가?” 하는 자책이었습니다. 그런 갈등하는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허 선교사님이 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아마존이 무너집니까?”

그 순간 김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무너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은 무슨 일이 생겨 선교지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면 소름이 끼쳤기 때문입니다.

허 선교사님 상태가 나빠져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도 바로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허 선교사님이 하신 그 한마디가 뼈아프게 들린 것입니다. 그때 김 선교사님은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하루 24시간, 꿈에서라도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사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 죽어도 원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하기보다 사역이 나를 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마존이, 사역이 우상이 돼 선교사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순간 우상을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지금은 부인 옆에서 함께 있어 주는 일이 최선의 사역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간 한국에 머무르며 허 선교사님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도 종종 “내가 삼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면 선교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했으나 그때마다 “인간인 내가 몸부림쳐서 주님께서 이만큼 열매를 주셨는데 주님이 직접 하시면 나만 못하시겠는가? 훨씬 더 잘하실 것을, 왜 또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찾아오려고 하는가?” 결국 이 갈등을 극복하고 한국에 들어와 바쁜 선교 일정에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던 부인과의 오붓한(병원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냈고 정말 거짓말처럼 허 선교사님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이 마지막 3개월까지 아마존에서 “사역이 먼저야”라고 하셨더라면 아마도 허 선교사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김 선교사님의 지금의 가장 최

선의 사역의 자리로 강권해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허 선교사님의 뒤편까지 더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최선의 사역의 자리는 어디인지요? 나의 고집스러운 사역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역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예전에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 중 KBS 토크쇼 ‘안녕하세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방송된 내용인데, TV 중독인 아빠 때문에 속상한 딸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아빠는 TV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람을 맞춰 놓고 TV를 보는 것은 보통이고 어떤 때는 보고 싶은 프로를 다 보려고 ‘컴퓨터 모니터 두 개로 동시 시청한다’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기에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항상 TV만 시청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다가 마트에 같이 갔을 때도 아빠는 차 안에서 DMB만 본다고 했습니다.

이 아빠는 TV를 볼 때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까지 줄줄이 외울 정도였습니

다. 스토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이름은 물론 드라마인 ‘오작교 형제들’의 출연 배우 이름까지 줄줄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아들과 딸 친구들의 이름은 물론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아빠의 모습에 결국 딸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물을 보자 엄마도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이날 ‘안녕하세요’에서 TV 중독 아빠가 1승을 거뒀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아빠를 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1승을 거뒀다고 좋아했을까요?

다들 뒤에서 흉을 봤을 겁니다. 이 아빠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아빠와 같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은 알지 못하면서 별로 알 필요도 없는 것들은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모릅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직원이고 뛰어난 경영자이지만 가족을 모릅니다.

세계 정치·경제와 미래를 꿰뚫는 지식이 있지만 가족의 아픔을 모르고 소원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
가야 정상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1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그
지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
호와를 알자.’

세상 지식의 정상을 경험했었던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3:8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 교실에서 배우는 기술 정도로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쫘~ 다녀보다가 좋으면 계속 다닐 게요’라는 분들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오래 하면 다 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신앙이 자라 가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향유내음 가득한 마음

예전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집회 전에 교회 근처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면서 다가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렵지만 오늘 저녁 식사를 제가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깜짝 놀라 무슨 이유냐고 물으니 그분이 전에는 교회에 잠시 다녔는데 본인이 출석했던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목사님에게 갈비를 한번 사드리려고 결심했는데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위암에 걸려 갈비를 드실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자니 제가 오늘 부흥회 강사로 온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대신 드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우리는 갈비를 먹었습니다. 찐 것을 먹었을
것을….

저도 웬만하면 대접을 잘 받는데 도저히 그날 식사는 그 아주머니에게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도 아니라 고용돼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이 식사
비를 벌려면 얼마나 힘든 수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대
접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정중히 거절하고 “그 목
사님을 한번 찾아가 드실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대접해 드리세
요. 그래야 아주머니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시원케 한 사람들은
매우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크
게 감격하시는 모습이 기록된 부분은 아마도 마리아가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여인이 깬 옥합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습니
다. 이스라엘에서는 처녀가 시집을 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옥
합에 향기로운 기름을 조금씩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시
집을 가게 됩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결혼을 위해 오랫동안 기름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소중한 기름이 든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 향

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이 나에게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선행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막14:6-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그 누구보다 겸소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이런 과한 예물을 쉽게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힘들게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대접하는 식사를 도저히 받을 수 없어 거절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눈물 나는 예물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받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향유 내음 가득한 마리아의 집에서 흐뭇해하시는 주님의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